

정부 '임 행진곡 알레르기' 해도 너무한다

이천 민주화운동 기념공원
첫 민주열사 합동안장식
"임 행진곡 제창 안돼"
"열사 명칭 사용 안돼"
안행부 지원 불가로 취소
"경직된 행정편의적 발상"
유가족협의회 등 비판

정부의 '임을 위한 행진곡' 퇴출 시도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경기도 이천에 조성된 민주화운동 기념공원의 첫 민주열사 합동 안장식도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 정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뿐 아니라 민주화운동 관련 행사에서 제창 형태로 불리는 것 자체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19일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 직속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심위)는 (사)전국민주화운동 유가족협의회 등이 산하 분과위원회를 통해 지난 3월 중순 신청한 '민주

화운동 기념공원 합동 안장식 행사계획'을 부결시켰다는 것이다.

산하 분과위원 중 한 명인 유가족협의회 한 회원은 지난달 5일 치르려다며 신청한 행사 계획에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포함돼 있는데, 국가 주관 행사에 '열사' 표현이 들어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고 밝혔다. 보심위가 해당 행사 계획을 승인하지 않아 안전행정부는 행사비용 지원을 하지 않았고 유가족협의회 등은 이에 반발, 지난달 5일 예정됐던 행사를 취소한 뒤 20여일 후 자체적으로 치렀다. 유가족협의회 등은 애초 강경대·이내창·이정순·최동 등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에 대한 합동 안장식을 계획한 바 있다.

보심위 측이 행사 계획 중 들어있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독창 또는 합창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고 '열사' 표현의 경우 '영령'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게 유가족의 설명이다.

유가족협의회 등은 '열사' 대신 '선열'로 바꾸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안전행정부는 관련 행사 비용을 지원하지 않았다.

국가가 497억원을 들여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유공자들을 안장, 그들의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자는 취지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을 조성해놓고도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및 '열사' 명칭 사용을 이유로 의미있는 행사를 거부한 셈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지나치게 경직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당시 행사 계획안을 올렸던 A씨는 "5·18 기념식도 임을 위한 행진곡 때문에 반쪽짜리가 됐지만 (우리의) 합동 안장식도 제대로 못 치렀다"면서 "그간 별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문제 삼은 이유가 무엇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는다. 조만간 기념곡 지정 문제도 있는데, 어떻게 전개될지 뻔하다"고 말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합동안장식 식순에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포함돼 있었는데, 국가보훈처의 선례에 따라 독창이나 합창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논의가 있었던 것은 맞다"면서 "(보상심의위의 '부결' 결정에 따라) 행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C형 간염 바이러스 면역 안되는 원인 규명 KAIST 연구팀

KAIST(한국과학기술원)는 의과학대학원 신의철 교수팀이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체내에서 면역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원인을 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미국 '위장병학저널'(Journal of Gastroenterology) 5월호에 실렸다. A·B형 간염 바이러스는 면역반응을 이용해 외부에서 침입한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지만, C형 간염 바이러스는 면역을 회피하기 때문에 감염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일반적으로 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T세포 면역반응에 의해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찾아내는 역할을 하는 '제1형 주조직복합체의 발현이 증가하게 된다. 연구팀은 세포분리 배양을 통해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세포 내의 'PKR'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해 제1형 주조직복합체의 발현을 억제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혀냈다. 기존에는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제1형 주조직복합체의 발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신의철 교수는 "C형 간염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신약들은 많이 있지만 백신은 개발되지 않은 상태"라며 "앞으로 C형 간염 바이러스의 예방 백신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C형 간염은 전 세계적으로 약 1억 7천만명,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의 1% 정도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감염되면 대부분 만성으로 변하며, 간경변증이나 간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행정부시장 '임 행진곡' 제창에 시민들 "서운한 마음 달래줬다"

오형국 "공무원 신분 고민했지만 시민 뜻이 먼저"

오형국 광주시장 직무대행(행정부시장)이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한 것을 놓고 정부에 대한 지역민의 서운한 마음을 달래줬다는 긍정적인 여론이 나오고 있다.

오 부시장은 강운태 광주시장의 민선 6기 시장 도전으로 시장권한 대행을 맡은 뒤 34주년 5·18기념식을 앞두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고 한다. 광주 정서상 기념식때 제창하지 않을 수도 없고, 행정직 공무원이라 신분 탓에 정부의 제창 반대 의견을 거스를 수도 없는 위치이기 때문이다.

오 부시장은 기념식 전에 광주시청 간부들에게 '임 행진곡'을 제창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광주시 행정의 수장인 자신마저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을 경우 광주에 득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오재일 5·18기념재단 이사장 등 5·18관계자들도 오 부시장의 의견에 공감했다고 한다.

18일 기념식 당일 '임 행진곡' 합창에 따른 반주가 시작됐고, 이때 열자리의 박준영 전남지사도 "일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며 제창을 제안하게 된다. 고민에 휩싸였던 오 부시장은 결국 자리에

서 일어나 노래를 함께 불렀다.

오 부시장은 19일 "막상 일어나려는 순간 맘이 교차했다"면서 "공무원이 정부의 뜻을 어기는 것은 옳지 않지만, 시장 권한대행으로서 시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도 옳지 않은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오 부시장은 또 '임 행진곡' 제창 논란과 관련 "정부와 보수측 주장은 진보단체가 애국가 대신 부르는 '임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임 행진곡'은 순수한 5·18 노래이며 특정 단체나 이념 단체와 상관 없다는 점을 정부 등에 적극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경찰 간부가 긴급 관용차량 출퇴근용으로 사용 논란

부하직원이 중대장 집 내려주고
복귀 중 교통사고 내 밝혀져

경찰 간부의 출퇴근용 긴급 관용 차량 사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비상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기동중대장 긴급 관용차량 출퇴근 가능'이라는 입장이지만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차량에 대한 편의주의적 해석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19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40분께 남구 방림동 한 도로에서 광주지방경찰청 기동 8중대 소속 박모(20)일경이 작전지휘용 관용 차량인 코란도 승용차를 몰고 가다 조모(17)군의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뒤 30여분 만에 자수했다.

박 일경은 이날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

념식 경비작전에 동원됐다가 부대로 복귀한 뒤 퇴근 시간에 맞춰 소속부대 중대장을 집에 내려주고 돌아오던 길에 사고를 냈다.

특히 해당 중대장이 경비 작전 뒤 퇴근 길에 긴급 관용 차량을 사용한 게 드러나면서 '사적' 이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해당 차량은 집회·시위 등으로 긴급출동하는 경우 의경들을 태운 대형 버스 선두에서 지휘하는 긴급 관용차량으로, 사적 이용이 불가능한데도 퇴근할 때 사용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청의 '상설부대 지휘체계 관리강화를 위한 지휘차량 운행관련 지시' 지침을 내세워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기동중대 중대장 등 지휘관은 비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만큼 출퇴근용으로 쓰도록 허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일 경찰 작전 상황은 낮 12시께 종료가 된다. 상황 발생 이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데도 모든 방법순찰대·기동중대 지휘관의 출퇴근용으로 긴급 차량을 사용토록 한 것은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차량에 대한 '아전인수'식 해석이라는 지적이 많다.

해당 중대장은 "규정 여부를 떠나 관용차를 타고 퇴근을 한 것이나 부대 복귀중이던 의경이 낸 뺑소니 사고 또한 나의 불찰"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일경은 경찰조사에서 "5·18 행사를 마치고 (부대에 있다가) 소속 중대장님을 집에 데려다 드렸다"면서 "그 뒤 운전 연습도 할 겸 차를 몰고 시내를 돌다 사고가 나서 당황해 도망쳤다"고 진술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우리 성년 됐어요" 성년의 날을 맞아 19일 오전 광주 남구 향교에서 전통방식으로 성년례를 치른 대학생들이 휴대폰을 이용해 사진을 찍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경찰이 부부싸움 중 주먹질

○~가정폭력 사건 등을 예방하고 조사해야 할 경찰관이 부부 싸움 도중 부인을 발로 차는 등 가정폭력을 행사하다가 부인의 신고로 경찰서행.

○~19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북부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 A(47) 경사는 지난 17일 밤 9시50분께 서구 동천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부인 B(43)씨의 몸을 발로 차는 등 몇 차례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A경사는 "평소 아내의 잔소리가 많아 사이가 좋지 않던 중 말싸움을 하다가 순간 화를 못이기고 실수를 했다"면서 "자세한 경위는 집안 일을 조용히 마무리한 뒤 경찰에 출석해 설명할 것"이라고 경찰에 해명.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15P - 13층

- 실평 - 9P
- 방향 - 무등산
- 대출 - 1200만원 안고 가능
- 임대 - 3백만원에 25만원 가능
- 시세 / 분양가 - 5천만원 정도
- 매매가 - 3400만원

29P - 12층, 15층

- 실평 - 18P
- 방향 - 하천
- 용도 - 주거겸 사무실
- 대출 - 2천5백만원 ~ 3천만원 가능
- 임대 - 보5백만원에 월35만원 가능
- 시세 / 분양가 - 1억 정도
- 매매가 - 6천5백만원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회사 사정상 급매, 문의 010-3605-5000

53P - 13층, 사무실 적합, 전체 올수리

- 실평 - 33P
- 방향 - 양동 ~ 하천쪽, 코너, 전망 좋음
- 용도 - 주거겸 사무실
- 대출 - 5천만원 ~ 1억원 가능
- 임대 - 보2천만원에 월80만원 가능
- 시세 / 분양가 - 2억 정도
- 매매가 - 1억5500만원

경매투자

▶ 경매 특수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

▶ NPL과 특수물건만 입찰

▶ 단독, 공동투자 가능

▶ 개인지도, 3개월 완성

▶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단, 상담후 본사 결정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

투자자 모심

2억원 이상, 2년정도